【논 문】

피식민자는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가*

-이태준 소설 「농군」(1939)에 나타난 '만주 이주'의 서사 구성 방식-

김 민 지**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제국의 인프라' 바깥의 곤경
Ⅲ. 이주민의 경로와 불통(不通)의 범주
Ⅳ.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이태준의 단편소설 「농군」(1939)이 조선인 이주민의 '유토피아 만들기'가 실패하는 과정을 어떻게 서사화하는지 검토한다. 「농군」에 앞서 연재된 기행문 「만주기행」(1938/1941)을 함께 읽음으로써, 이 소설이 교통이 통하지 않는 지역을 배경으로 삼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다루고 있음을 살핀다. 2장에서는 이태준이 만주 방문을 통해 장쟈워푸가 '문제적 장소'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군」의 공간적 배경을 구성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소설에서 장쟈워푸는 철도·수로 등 '제국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공간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이주민들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만주기행」과 「농군」의 이동 과정 서술을 비교하여, 경유지인 평양에 내려 머물 수 있는 '여행자의 경의선'(「만주기행」)과 만주로 이주하는 '농민의 경의선'(「농군」)이 다르게 그려진다는 점을 밝힌

* 이 글은 2025년 4월 26일 '한국철도학회-만주학회 공동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경원선과 한국문학의 철도 표상, 그리고 이태준의 「농군」(1939) 재독」의 일부를 바탕으로 대폭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발표 당시 현장에서 조언해 주신 선생님들과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연수연구원.

www.kci.go.kr

다. 이어 「농군」이 '토민들'과 '쿨리들'로 지시되는 이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묘사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이러한 언어의 문제가 주인공이 느끼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부각하고 있음을 살핀다. 특히 '쿨리'를 향한 시선에서는 조선인 이주민 역시 다른 피식민 집단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소설이 결과적으로는 '토민들'의 입장과 '쿨리들'의 투덜거림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수로' 공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글은 「농군」을 통해 민족 혹은 '우리'를 위한 유토피아 찾기라는 목표가 개발의 의지와 뒤섞이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설 「농군」이 '친일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넘어 피식민자가 품었던 근대적 꿈의 복잡성을 살피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재독될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이태준, 「농군」, 「만주기행」, 만보산 사건, 경의선 표상, 만주 이주 서사, 식민지 개발, 유토피아 소설

Ⅰ. 들어가며

1939년 7월 『문장』 임시 증간호에 발표된 이태준(1904~?)의 「농군」은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농민의 곤경을 담은 소설로, 2000년대 국문학계에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농군」을 "'왕도낙토'와 '오족협화'를 바탕으로 하는 '만주 이데올로기'의 문학적 구현"으로 본 논의,[1] 이에 반해 당시의 '검열'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작가가 무엇을 '말하지 않으려 했는가'에 주목한 논의가 대표적이다.[2] 이른바

1) 김철,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508쪽. 이 글은 2002년 『상허학보』 9집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후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수록되었다. 장영우는 김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농군」이 전략적으로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장영우, 2006, 「〈농군〉과 만보산사건」, 『현대소설연구』 31, 한국현대소설학회.

2) 이상경, 2010,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www.kci.go.kr

'농군 논쟁'이 발생하게 된 주요 계기는 소설의 소재 및 공간적 배경에 있다. 이 소설은 '만보산 사건(萬寶山 事件)'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 중국 동북지역, 이른바 '만주'[3]에서 발생한 조선인과 중국인 간의 물리적 충돌을 의미한다. 당시 해당 사건이 다소 왜곡된 방식으로 국내에 전달되면서 인천, 평양 등에서 대규모 폭력 사건인 '배화 사건'[4]까지 일어났고, 이에 오늘날 '만보산 사건'은 관련 사건들의 총칭으로 쓰이고 있다.[5] 즉 이 사건은 '오보'와 같은 문제적 허구의 역사를 돌아볼 때 특기할 만한 사례로 꼽히며, 여전히 중요한 논쟁거리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 사건을 소재로 삼은 「농군」이 '허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은 1939년 발표되었음에도 실제와 달리 '장작림 시대'라는 시간적 배경을 앞세우고 있다.[6] 이에 본 논문은 「농군」이 현실의 시공간과는 구분되는 '없는 장소'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려 한다. '(실제로는)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

3) 해당 지역에 관해 논할 때 어떠한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섬세한 접근이 요청된다. 여기서는 논문의 주제, 주요 검토 대상의 서술 방식, 해당 시기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 중국 동북지역에 해당하는 소설 속 공간적 배경을 '만주'로 지칭하겠다.

4) '배화 사건' 혹은 '배화 폭동' 등으로 불린다. 해당 사건을 명명하는 방식을 두고, "이 사건은 주로 '중국인 배척 사건', '화교 배척 사건', '배화排華 사건', '배화 폭동' 등으로 불린다"는 점을 고려하되 집단적 폭력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반중국인 폭동'으로 칭하겠다는 의견도 제출되었다.(정병욱, 2012, 「신설리 패, 중국인 숙소에 불을 지르다: 1931년 반중국인 폭동에 대한 재해석」, 『역사비평』 101, 역사문제연구소, 339쪽.) 한편, "민족주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성찰 없는' 민족주의가 문제"라며 당시 발생한 '화교박해사건'의 특이성을 국제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윤상원, 2012, 「만보산 사건과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중국 인식」,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31쪽.) 본고는 명명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역성이 주요 논점에 해당하므로, 중국에서 발생한 '만보산 지역 사건'과 조선에서 발생한 '배화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되 각 사건의 특징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이상경의 서술 방식을 따라 해당 사건을 지칭할 때에는 '배화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이상경, 2011, 「1931년의 '배화(排華)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11, 만주학회, 87-88쪽.) 조선인들이 주도한 집단적 폭력 사태는 분명 문제적이며, 이는 '만주'와 같은 혼종적 공간의 역사를 논할 때 '우리'를 중심에 두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운다.

5) 윤해동, 2013, 「'만보산 사건'과 동아시아 '기억의 터': 한국인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483-484쪽.

6) 이에 대해서는 김철, 고명철, 이상경 등이 분석한 바 있는데, 본고의 2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다. 김철, 앞의 글; 고명철, 2008,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 이태준의 〈농군〉과 한설야의 〈대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9, 한국문학회; 이상경, 2010, 앞의 논문.

www.kci.go.kr

‘유토피아’는 이상적 공간을 논할 때 흔히 쓰이는 용어로,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모어(Thomas More)가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를 담은 『유토피아』에서 유래했다. 번역본 해제문에 따르면, 근대 이전 시기에도 ‘행복한 사회를 향한 꿈’은 늘 있었지만, 유토피아의 경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근대의 기획(project)’으로 볼 수 있다.[7] ‘근대적 발전’이 이뤄지던 시대에 출간된 『유토피아』는 ‘절망적 세계’인 디스토피아에서 ‘이상적인 나라’인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8] 모어의 『유토피아』는 유토피아인들이 “원주민들이 경작하지 않는 빈 땅”에 식민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더 많은 ‘곡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구상을 전한다.[9] 이때 ‘풍족한 식민지’의 구상은 유토피아 기획의 이면을 돌아보게 한다. ‘이상적인 사회 만들기’라는 기획은 그 내부에 속하지 못한 자를 배제할 위험성을 동반한다. 그렇다면 유토피아의 실현 방법을 알아내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유토피아인가’라는 성찰일 것이다.

사실 「농군」의 ‘유토피아’ 문제는 당시 만주에 거주하였던 조선인들의 이중적 위치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농군 논쟁’에서 이미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는 특히 작가의 친일 혐의 근거로 거론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10] 하지만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이태준의 유토피아 구상에 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조소문화협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태준의 『소련기행』을 검토한 임유경의 연구,[11] 마찬가지로 『소련기행』에 주목하여 이태준 미학의 특성을 ‘동양적’ 인식 체계를 가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찾은 조영추의 연구가 대표적이다.[12] 그런데

---

7) 주경철, 2021, 「해제-유토피아: 이상 사회에 대한 거대한 농담」, 토머스 모어, 주경철 옮김, 『유토피아』, 을유문화사, 167-168쪽.

8) 위의 글, 177-182쪽.

9) 토머스 모어, 위의 책, 75쪽.

10) 대표적으로 ‘만주 유토피아니즘’에 관한 김철의 논의를 짚어볼 수 있다. (김철, 앞의 글.) 반면에 손유경은 이태준의 ‘만주기행’에 나타난 “만주 유토피아니즘의 실체를 폭로하는 만주국 채표 열풍”에 주목하여 ‘제국 비즈니스’ 맥락에서 만주의 상황을 고찰했다.(손유경, 2013, 「이태준의 「이민부락견문기」에 나타난 제국의 비즈니스와 채표(彩票)의 꿈」, 『관악어문연구』 3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8쪽.)

11) 임유경, 2016, 「소련기행과 두 개의 유토피아: 해방기 “새조선”의 이상과 북한의 미래」,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연구소.

www.kci.go.kr

이 연구들은 작가의 '월북' 이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해방 이후의 작가 의식을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식민지기 이태준의 유토피아 구상을 해방기의 전사(前史)로 남겨두게 한다.[13]

물론 이태준의 '월북'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비러시아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을 국제주의 못지않게 권장하였던 일[14]을 생각해 보면, 이태준의 '월북'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기존에 지적되었듯 소설 「농군」과 당대 '민족주의' 의식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15] 이태준은 특정 체제를 향한 지향 의식과는 별개로 공동체의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했던 예술가였다.[16][17] 그 의지가 만주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복잡해졌을 수는 있지만, 손유경의 지적처럼, 이러한 작가 의식을 '동포애'나 '리얼리스트로의 전환'으로 규정하긴 어려워 보인다.[18]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후반의 만주는 조선인들이 더 나은

12) 조영추, 2019, 「정치적 유토피아와 전통지향적 미학의 이합(離合)관계: 이태준의 소련·중국 기행문과 소설 「먼지」 겹쳐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71, 민족문학사연구소.

13) 한편, 해방기 이태준의 활동을 작가가 식민지 시기부터 보여온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 및 예술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한 일련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진숙, 2023, 「해방 이후, 월북 전후의 이태준」, 『한국현대문학연구』 71, 한국현대문학회; 배개화, 2015, 「이태준, 최대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자: 해방 이후 이태준의 사상과 문학」,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14) 실라 피츠패트릭, 안종희 옮김, 2023, 『아주 짧은 소련사: 러시아혁명부터 페레스트로이카까지, 순식간에 사라진 사회주의 실험의 역사적 현장』, 롤러코스터, 23-53쪽 참조.

15) 이는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다뤄졌으며, 최근에는 전시체제기에 「농군」이 두 차례 일본어로 번역된 것에 주목함으로써 번역 과정에서 민족 의식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음이 검토된 바 있다.(朴弘, 2026, 「번역문의 차이로 보는 '万宝山事件'의 문학적 표상: 李泰俊 「農軍」의 일본어 번역본 비교 분석」, 『만주연구』 41, 만주학회.) 이 연구는 「농군」이 당대 동아시아 문단 및 독자들에게 수용된 방식을 살필 실마리를 제공한다.

16) 이와 관련해, 소련 여행 과정에서 "고리키 문학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태준이 소련을 유토피아로 찬양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장영은의 지적을 참고할 수 있다. 장영은, 2021, 「가면을 쓴 작가들: 정지용과 이태준의 고백」,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473쪽.

17) 이태준의 '공동체' 이상에 대해서는 장성규, 2006,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 오스키 사카에,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 그룹,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택호, 2010, 「이태준 문학과 이상적 공동체주의」,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김민지, 2025, 「한국문학과 경원선의 의미망: 이광수·이태준·최인훈 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장 참조.

18) 손유경, 앞의 논문, 226쪽.

www.kci.go.kr

삶을 살 수 있는 이상적 공간으로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지 개발 체제는 제국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만주(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북부 지역이 '북선'으로 호명되었으며,[19] 만주개척이민과 개척촌 개발은 유사한 기획에서 나온 두 갈래의 "탁상 위 유토피아"로 평가된다.[20] 터전이 될 땅은 유한하기에, 만주로 간 이주민들이 유토피아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곳에 살고 있던 이들과 적대적 구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소설 「농군」은 이 같은 개발 사업의 맥락에서 만주의 상황을 다룸으로써 유토피아의 복합적 속성을 피식민자들 간의 '땅 싸움'으로 형상화하고 있었다.[21]

일제 말기로 갈수록 '낙관적 미래상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라는 문학의 화두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22] 이러한 가운데 「농군」이 보여준 유토피아의 불가능성은 작가 개인의 역량이나 특정 체제를 향한 작가 의식이 아니라, 피식민자들끼리 충돌하게 만드는 식민지 개발의 구조[23][24]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

19) 1931년 만주 침략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만주로 향하는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북선 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태우, 2020, 「식민지기 '북선개발(北鮮開發)' 인식과 정책의 추이」, 『한국문화』 8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1쪽.)

20) 양지혜, 2022, 「탁상 위의 유토피아: 일제하 조선 북부의 개척촌 조성과 실패」, 『사림』 81, 수선사학회, 253쪽.

21) 하재연의 경우, 임학수의 「북지견문록」(『문장』 1권 6호, 1939.7)과 이태준의 「만주기행」을 비교 분석하여, 이태준의 서술이 '오족협화'와 같은 국책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사유를 보여주고 있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이태준이 '고향'에 돌아갈 자신과 달리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영토"의 "사이"에 놓인 이주 농민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있음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하재연, 2008, 「'신체제(新體制)' 성립 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 이태준의 〈농군〉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5, 한국현대문학회, 303-304쪽.)

22) 비슷한 맥락에서 「농군」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시기 이태준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수영의 주장은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당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 문학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게 하기 때문이다.(한수영, 2004, 「이태준과 신체제: 식민지배담론의 수용과 저항」, 문학과사상연구회, 『이태준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196쪽.)

23) 이태준의 「농군」 속 조선인들이 "친일과 저항이라는 단순 독법을 거부한다"는 점에 착목하여 '개척 장소로서의 만주'에서 파생되는 '생존 문제'에 주목한 논의로는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44-145쪽.

24) '만보산 사건' 당시 문제가 된 '수전'이 '자본주의적 기술'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주에서의 농업 형상화를 검토한 논의로는 김주현·권혁건, 2011, 「일제 강점기 만주의 농업 기술을 통해 본 민족 문제 시론(試論): 안수길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회.

그 실패가 어떻게 서사화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철도와 수로 같은 '제국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제 공간이 허구화된 방식을 검토한다. 이어 3장에서는 「농군」과 「만주기행」의 차이점으로 이동 경로에 주목하고, 조선인 이주민들이 느끼는 '불통'의 감각을 살핀다. 이를 통해 「농군」이 남기는 '누구의 유토피아인가'라는 질문을 돌아보려 한다.

Ⅱ. '제국의 인프라' 바깥의 곤경

1. 철도와의 거리를 통한 현실의 묘사

식민지 개발은 제국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그 연관성을 대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인프라'의 구축 과정이다. '인프라'에 주목하여 식민지기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을 다시 읽는 작업은 오늘날 식민주의에 대한 서술 방식을 폭넓게 돌아볼 길을 제시해 준다.[25] 이 지점에서 먼저 철도 묘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철도 시스템은 대표적인 '제국의 인프라'에 해당한다. 조선의 경우, 철도는 분명 일본의 식민주의 기획에 따라 만들어진 근대적 교통수단이었다. 그렇지만 조선인들 역시 다양한 용도로 철도를 활용하였는데, 이에 철도는 한국 근대문학이 전략적으로 '전유'한 주요 장치 중 하나로 검토되곤 한다. 주지하듯 이태준은 근대 모빌리티(mobility)에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작가였으며, 「농군」에서도 철도는 꽤 중요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농군」의 철도 표상은 일찍이 임화(1908~

25) 영문학자 도미닉 데이비스는 식민문학에 나타난 '제국의 인프라'에 주목함으로써 '저항'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읽어내길 시도한다. 이 논의는 '식민문학'에 대한 것이지만, 한국근대문학의 '만주' 재현 방식을 재검토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준다. 명확히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을 담았다고 보기 어려운 작품일지라도 오늘날 어떻게 그러한 사례를 새롭게 살필 것인가와 관련된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도미닉 데이비스, 김태한·김태희 옮김, 2025, 『제국의 인프라: 1880년부터 1930년까지 식민문학에 나타난 제국의 인프라와 공간적 저항』, 앨피, 참조.)

www.kci.go.kr

1953)가 주목한 지점이기도 했다. 그는 소설 「농군」이 북쪽으로 향하는 이들의 생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열차'에 관해 논하였다.26)

> 四十篇이 넘는 作品가운데서 나는 李泰俊氏의 『農軍』에이르러 비로소 感動을가지고 읽을 수가 잇섯다. […중략…] 北行列車의 슬픈 그림자가 或은 그속에 담겨가는 主人公 一家의 애처로운 모양이대체 무슨價値가 잇는가?27)

조선인 이주의 비극적 측면을 부각한 임화의 비평은 비슷한 시기 한국 문인들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실제로 1937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지휘하에 객차가 모자를 정도로 많은 수의 강원도 이재민들이 만주로 향했다.28) 「농군」의 주인공 가족 역시 강원도에서 떠나온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소설 「농군」의 도입부는 이들이 기차를 타고 만주로 이주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인용문 (가)]
> 봉천행 보통급행 삼등실, 나리는 사람보다 타는 사람이 더많다. 세면소에는 물도 떠러젔거니와 거기도 기대고, 쭈쿠리고 모다 자기체중에 피로한 사람들로 빼국 찻다. 쳐다보면 시렁도 그뜩 그뜩, 가죽가방, 헝겊 봇다리, 신문지에 꾸린것, 새끼에 얽힌 소반, 바가지쪽, 어떤것은 중심이 시렁끝에 겨우 걸치어 급한 카쁘나 돌아간다면 밑엣 사람 정수리를 내려치기 알맛다.29)

> [인용문 (나)]
> 『돈 얼마나 가지구 가나?』
> 『한 오백원 됩니다』

---

26) 일제 말기 '협력과 저항'의 복잡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만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서로 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농민들의 형상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은 것 또한 이 맥락에서 함께 짚어볼 수 있다.(김재용, 2004, 『협력과 저항: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66쪽.)

27) 임화, 「7월 창작평 (1): 燦! "農軍"의 悲劇美」, 『조선일보』, 1939.7.19.

28)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01쪽.

29)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17쪽.

www.kci.go.kr

『오백원, 웬건가?』

『밭허구 산허구 집서껀 판겁니다』

『집두 있구 밭두 있으면 왜 고향서 안 살구 가는 거야?』

[…중략…]

마침 차가 꽤 큰 정거장에 머믄다. 형사는 수첩을 집어넣더니, 쓰단 달단 말도 없이 차를 나린다.

『얘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다라와 진작부터 서있었던 것이다.

『괜찮어요. 으레 조사허는거야요』

『글세, 그래두……』

어머니와 아들은 뒤를 돌아보며 서로 이끌며 저이자리로 돌아왔다.[30]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은 작가의 실제 경험과 연관된 대목이다. 이태준이 '만주 기행' 이후 이 소설을 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용문 (가)'의 '바가지'는 이태준이 여행 중 열차 안에서 본 것을 소설에 구현한 사례다. '바가지'는 조선인 이민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주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인용문 (나)'는 주인공이 만주로 향하는 기차의 객실 안에서 한 형사에게 여러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만약 "이 장면이 없었다면, 「농군」은 조선 농민들이 만주에 이민을 가야 했던 역사적 연원에 대한 해명이 생략되면서 제국주의와 조선 민중의 모순을 다룰 수 없었을"[31]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대목이다. 이 대목은 소설 1장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놓여 있으며, 2장부터는 주인공 가족이 만주로 이주하며 부딪히는 생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즉 「농군」은 '기차표'를 검사하는 일본 측 형사가 조선인 농민의 사정을 상세히 따져 묻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취약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행문의 집필 배경은 지난 '농군 논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이기도

30)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20-221쪽.

31) 하정일, 2004, 「1930년대 후반 이태준 문학과 내부 식민주의 성찰」, 문학과사상연구회, 『이태준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68쪽.

www.kci.go.kr

했다. 이태준은 관련 경험을 『조선일보』에 "르포르타―쥬 移民部落見聞記"라는 제목의 글로 연재한 후(1938.4.8.~21, 총 11회), 「만주기행」으로 제목을 고쳐 단행본 『무서록』(1941)에 수록하였다. 그 사이 1939년 『문장』을 통해 발표한 소설이 바로 「농군」이었다. 이에 이 글이 '제국의 시선'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 일본이 주요 정책으로 밀고 있던 '만주행'을 담은 글인 만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32]

> 滿洲에서 가장 오랜 편이요 가장 큰問題가 일어낫던 곳이요 가장 먼저 朝鮮人의 손으로 큰 水路가 荒蕪地를 貫流하게 된데가 萬寶山 一圓인데 萬寶山의 여러 部落中에도 新京서 가기 便利한 곳은 「쟝쟈워후(姜家窩堡)」라는데라 한다. 그러나 알고보니 거기도 그리 交通이 便한 곳은 아니다. 新京驛에서 白城子行을 타고 두停車場만에 나려서 朝鮮里數로는 한 三十里 걸어가야 朝鮮移民의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것이다. 朝夕으로 두번밖에 없는 아침車는 벌서 놓쳤거니와 車에서 나려 三十里가 문제다.[33]

그런데 위와 같이 기행문에서도 "쟝쟈워후"[34]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곳'이자, '가장 먼저 조선인들이 수로를 만든 곳'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이태준이 관련 경험을 산문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 및 사건의 문제성을 숨기려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장소성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점은 기행문 「만주기행」과 소설 「농군」이 모두 도입부에서 기차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두 글은 역에서 꽤 거리가 있는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에도, 기차를 통한 이동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공통점

32) 김철, 앞의 글, 494-522쪽.

33) 이태준, 「滿洲紀行」, 『無序錄』, 博文書館, 1941, 298쪽. 이후 인용 시 "이태준, 「만주기행」, 1941, '쪽수'"로 표기함.

34) 「농군」에서는 "姜家窩棚"로, 「만주기행」에서는 "姜家窩堡"로 표기되어 있다. 소명출판에서 발간한 『이태준 전집』에서는 "장쟈워푸"(「농군」), "쟝쟈워후"(「만주기행」) 등 원문에 따라 표기법을 혼용하고 있다. 「농군」 관련 연구 중에는 '장쟈워푸'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학술적 소통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한편 전집 표기 방식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는 직접 인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쟈워푸'로 표기하겠다.

www.kci.go.kr

을 지닌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태준은 기행문을 『조선일보』에 발표한 후 1941년 수필집 『무서록』에 재수록하면서 제목을 「만주기행」으로 수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용도 일부 고쳤는데, 연재 기준 1화 마지막 부분에 '기차'에 대한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영인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개작은 "만주개발에 대한 이태준의 인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분명해진 증거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35] 본 논문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장쟈워푸 묘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태준이 장쟈워푸에 가고자 미리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본래 이태준이 가보고 싶었던 '부락'은 "滿鮮拓殖株式會社의 이름이나 國策으로" 방문이 이루어지기에 혼자서는 갈 수 없었다고 한다.[36] 이에 그는 "新入植地는 斷念하고 萬寶山 「쟝쟈워후」로나 가기로 決定"했고, 때마침 신경에 왔다 장쟈워푸로 돌아가는 조선인들이 있어 동행하게 된다.[37] 이태준은 장쟈워푸의 조선인들을 따라 소합륭(小合隆) 역에 내려, 벌판과 '토민들'의 집이 놓인 거리를 한참 걸어 마침내 논과 '만보산 사건'이 발생했던 조선인 마을에 도착한다. 이 과정을 통해, '만보산 사건'에 연루된 조선인들의 거주지가 기차역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농군」은 이러한 장소를 배경으로 삼아, 철도 같은 '제국의 인프라'가 이동 자체는 가능케 하더라도, 이주민들의 생존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는 해당 지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철도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의 '생존 투쟁'으로 보고, "논과 쌀과 물에 익숙지 않은 만주토민들의 습성과 논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이민들의 습성은 서로 부딪쳐 '사생결단'의 투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한다.[38] 물론 이는 「만주기행」에 대한 해석이었지만, 「농군」의 집단적 충돌 장면을 재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소설 속 묘사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주기

35) 서영인, 2007, 「일제말기 만주담론과 만주기행」, 『한민족문화연구』 23, 한민족문화학회, 229쪽.
36) 이태준, 「만주기행」, 1941, 298쪽.
37) 위의 글, 299쪽.
38) 서영인, 위의 글, 230-231쪽.

www.kci.go.kr

때문이다. 일례로 이상경은 해당 작품이 "기록문학이 아니라 소설이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이태준이 마지막에 제시한 '사생결단' 장면이 "단편소설이고, 극적인 결말을 위해 (…) 허구화를 행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39] 그렇다면 「농군」을 전략적 '허구화'의 결과물로, 「농군」에서의 유혈 사태 역시 '철도와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발생한 생존 투쟁을 '허구화'한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되짚어볼 점은 이 전투가 '철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농군」은 '제국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지만, 결국엔 실패하는 조선인 이주민들의 곤경을 서사화한 사례다.

2. 허구를 통한 '수로 놓기'의 서사화

「농군」에서 '철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프라'는 '수로'다. 조선인 이주민의 개발을 향한 의지는 수로라는 소재를 통해 형상화되는데, 특히 수로가 생존의 조건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조선인 이주민에게는 농사의 필수 요건인 수로가 해당 지역에서 먼저 살아온 농민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민 묘사 방식에 주목해 보면, 「농군」이 '오족협화' 등 일제의 선전 구호를 주제로 삼았던 문학과 어긋난 지점에 놓여 있었음을 되살펴 보게 된다. 이는 1940년 9월 『만선일보』에 발표된 김진수의 소설 「이민의 아들」에 그려진 조선인 이민자 가족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 류샤오리(Liu Xiaoli)는 이 작품을 식민지 시기 중국 동북지역에 등장한 저항문학의 한 종류인 '해식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분석 중 각별히 짚어볼 대목은 주인공 가족이 살고 있는 '조선인 집단부락'의 일상 묘사에 주목함으로써 조선인들이 "근면함"을 잃어 가는 과정을 포착하는 부분이다.[40] 반면에 「농군」은 오히려 그 '근면함'을 끝까지 잃지 않았

39) 이상경, 2010,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184-186쪽.

40) 류샤오리, 천춘화 옮김, 2024, 『국토의 함락, 문인의 행보: 만주국 문학론』, 보고사, 40쪽. 이 글은 『만주연구』 22호를 통해 원문과 번역문이 먼저 공개된 바 있다. 리우샤오리(Liu Xiaoli), 2016, 「[번역문] 동아시아 식민주의와 문학: '만주국' 문단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2, 만주학회; 2016, 「东

기에 발생한 비극을 보여준다. 「농군」의 조선인 이주민들은 '근면한 농민'이었기에 '성실히' 수로를 개발하려 했던 것이다.[41]

주목할 점은 소설 「농군」이 이 이야기가 실제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군」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소설의 가장 앞머리에 "(이 小說의 背景 滿洲는 그전 張作霖의 政權時代임을 말해둔다.)"[42]라는 짧은 문구가 놓여 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장작림(張作霖)은 중국 동북지역의 '봉천군벌'을 지휘했던 인물로 1928년 6월 4일 사망했고,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군」은 '만보산 사건'(1931.7)을 소재로 삼은 소설인데, 정작 이야기의 배경은 장작림 사망(1928.6)보다 앞선 시기인 '장작림 시대'라고 설정된 셈이다. 이를 두고, 1939년의 만주를 평화로운 것처럼 그렸다는 점에서 일종의 '프로파간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거나,[43] 반대로 이태준이 식민주의 담론의 문제성을 지적하고자 전략적으로 '제국의 시선을 취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제출되었다.[44] 이태준은 '만주국'이라는 제국이 부여한 명칭 대신 '장작림'이라는 인명을 통해 시대 배경을 내세웠다. 이는 '만보산 사건'보다 3년 정도 이른 시점에 해당한다. 물론 이태준이 '만보산 사건'을 감추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만주기행」에서 해당 사건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이태준은 당시 방문한 장소에 관해 "그 有名한 萬寶山事件을 일으킨 봇도랑이라"[45]고 설명하며, 독자들에게 '만보산 사건'을 확실히 상기시켰다. 그는 "그때 그들의 총알에 命中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한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 뿐 아니라, "萬一 그 土民들이 殺生을 질기는 사람들이였다면 그土民들의 몽둥이에라도 犧牲者가 없지 못했을것이라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46] 사실 이상경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설

亚殖民主义与文学-以伪满洲国文坛为中心的考察」, 『만주연구』 22, 만주학회. 여기서 2024년 번역본을 인용하는 이유는 "근면함"이라는 표현이 본고의 관심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41) '근면함'은 반대로 조선인들이 다른 피식민 집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하겠다.

42)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17쪽.

43) 김철, 앞의 글.

44) 고명철, 앞의 글, 91쪽.

45) 이태준, 「만주기행」, 1941, 304쪽.

www.kci.go.kr

정은 비슷한 사건을 다룬 다른 작품들이 '만주국 수립'을 일종의 분기점으로 제시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더욱 도드라진다. 가령 안수길의 「벼」는 "만주 건국 2년 전", 마츠야마 마코토의 「한등」은 "건국 전후", 장혁주의 『개간』은 후기를 통해 "만주국 건국 이전"이라는 표지를 제시했다.[47] 이에 이상경은 「농군」이 "마적이나 '공비'"는 흐릿하게 처리하고, "중국 농민과 조선 농민 각자의 농법과 생활 방식이 달라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치안'을 앞세운 일본군이 등장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48] 이러한 연구 동향을 참고하되, 본고는 이러한 '장작림 시대'라는 표지가 '장쟈워푸'라는 공간적 배경과 맞물려 있음에 주목하려 한다. 「농군」은 이 명칭의 의미가 "조선사람들 동네"로 바뀌게 된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 쟝쟈워푸(姜家窩棚), 눈이 모자라게 찾아보아야 한두집, 두세집, 서로 눈이 모자랄 거리로 드러난다. 이런, 어느 두세집이 중심이 되여 「쟝쟈워푸」란 동네이름이 생겼는지 알수 없다. 산은커녕 소 등어리만한 언덕도 없다. 여기 와 개간권 운동을 해가지고 황무지를 사기 시작하는 조선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듸를 중심으로하고 집을 지어야할지 몰랐으나 차차 자기네의 소유지가 생기자 그땅 한쪽에 흙을 좀 돋우고 돌 하나 없는 바닥에다 돌주초하나 없이 청인에게서 백양목 따위 생나무를 사다가 네귀 기둥만 세우면 흙으로 싸올리는 것이, 근삼십호 모여 앉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쟝쟈워푸」라면 이 조선사람들 동네가 중심이 되었다.[49]

---

46) 이태준, 「만주기행」, 1941, 311쪽.

47) 이상경, 2010, 앞의 논문, 191-192쪽. 이상경의 연구는 「농군」이 그리는 우울한 미래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다만, 본고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만주 지역이 지닌 혼종성 혹은 국제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언어가 통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두려움'과 '답답함'이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이러한 감정과 인식 구조에 주목하는 것은 '나' 또는 '우리'와 다른 속성을 지닌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형성되는 유토피아의 이면을 돌아보게 한다.

48) 이상경, 2010, 앞의 논문, 192-193쪽. 이러한 설명은 「농군」의 시간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본고는 기차 객실 상황을 묘사한 도입부의 대목에서 일본 측 형사가 '기차표'를 검사하는 장면이 제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 '인용문 (나)'에서 확인하였듯 여기서 일본 측 형사는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49)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22쪽.

www.kci.go.kr

인용문은 「농군」 3장의 첫 문단이다. 장쟈워푸에서 "개간권 운동"을 펼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새로운 장소로 이주해간 이들이 정착을 위해 "집", "자기네의 소유지", "동네"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주한 조선인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자 했고, 특히 농사지을 땅을 원했다. 문제는 소설이 발표된 1939년의 만주가 '오족협화' 같은 일제의 구호가 내걸린 장소였다는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제는 만주 개척 과정에서 민족들 간의 화합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소설 「농군」은 그러한 현실적 문제를 '수로 개발'을 둘러싼 입장 차이와 물리적 갈등으로 서사화한다. 벼농사를 위해 수로가 필요한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위해 이 땅에서 먼저 살고 있던 이들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과 먼저 거주하고 있던 농민들은 '땅'을 중심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태준은 '만주기행' 당시 지역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었음에도, 소설에서는 해당 사건을 민족 간 전투로 묘사하였고, 이는 「농군」의 문제적인 대목으로 꼽히곤 한다. 그러나 이태준의 의도는 '만보산 사건'의 발생 배경을 숨기는 데 있지 않았다.[50] 「농군」이 이른바 '국책 서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슷한 시기 다른 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1939년 11월 『인문평론』에 실린 이기영의 「만주와 농민문학」의 일부다.[51]

---

50) 백산(白山) 안희제(1885~1943)의 '발해농장'의 역사에 주목함으로써 이태준과 쟝쟈워푸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이태준이 「만주기행」을 '이민부락 견문기'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던 1938년은 이미 안희제가 운영하던 '만주 발해농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던 시점이었다. 이에 '모란강 어디'로 가면 굶주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전하는 「이민부락 견문기」 속 서술이 중일전쟁 이후의 조선인들에게 '발해농장'의 존재를 암시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태준의 글을 '친일'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 기행문은 쟝쟈워푸와 발해농장의 농장 운영 방식을 비교하게 하는 글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홍기돈, 2007, 『근대를 넘어서려는 모험들』, 소명출판, 18-36쪽.) 이는 실패의 의미를 극대화하려는 본고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지만, '만주기행'을 계기로 이태준이 어떤 대안적 공간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시사점을 준다.

51) 서영인의 경우, 이기영이 '농촌소설'을 창작하던 작가로서 만주 개척에 특별한 관심을 지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국경의 도문」(『문장』, 1939.11), 「만주와 농민문학」(『인문평론』, 1939.11), 「만주견문: 대지의 아들을 찾아」(『조선일보』, 1939.9.26.~10.3) 등을 통해 확인되는데, 이기영은

> 從來의 滿人은 水田을 開墾할줄 몰렀다. 그들은 오즉 旱田을 耕作할뿐이였다한다. 그래서 그前에는 茫茫한 曠野中의 適地를 골러서 田穀을 심었을뿐, 그밖에 廣大한 低濕地帶는 그대로 荒蕪한채 내버려 두었섰다. 滿洲는 地廣人稀하였기때문에, 그들은 荒地를 開拓하지안어도 살수있었을것이며, 또한 벼 農事를 질줄모르니, 그런데는 버려둘수 밖에 없었을것이다. 滿洲가 開發되지못한 原因은 그밖에도 없지안을것이니, 그것은 地域이 廣大함에 比하야 文化가 發達되지 못하였고, 自古로 飜覆無常한 國家의 興亡이 人民의 生活을 根底로부터 破壞시킨 까닭으로 말하자면 王化不及의 胡地를 만드러버린 感이 없지안었다 할수있다.[52]

'오랑캐의 땅'을 의미하는 "胡地" 같은 표현이 암시하듯, 인용문은 만주 지역이 인식된 한 방식을 보여준다. 이어 이기영은 "滿洲의 水田開發은 原始的 自然을 變改하는 偉大한 創造性을 띄고있다"고 덧붙인다.[53] 이러한 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부원을 개발"한 것을 넘어 "자연미를 가져오게" 하여 해당 지역이 '온화한 기후'로까지 바뀌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54] 즉 이기영의 글에서 '개발'은 조선에서 이민 간 농민들은 물론이며, 해당 지역에서 원래 살고 있던 이들까지 더 풍족하게 살게 할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제시된다. 이와 달리, 「농군」은 조선인 농민과 중국 농민 사이의 충돌을 '수로를 건설할 것인가, 건설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농군」의 조선인 인물들 역시 수로 개발의 당위성을 말한다. 그러나 「농군」은 그 말에 대한 중국 농민들의 입장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 너이들도 그물을 끌어다 베농사를 지으면 도리혀 이익이 아니냐 해도 막무가내었다. 자기넨 베농사를 지을줄도 모르거니와 이밥을 못먹는다는 것이다. 고소하지

"조선이민들의 생활향상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라 때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만주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서영인, 2007, 앞의 논문, 226-227쪽.) 이러한 서영인의 분석을 참고하면서, 본고는 '땅'의 문제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52) 이기영, 「만주와 농민문학」, 『인문평론』 1939년 11월호, 20-21쪽.

53) 이기영, 위의 글, 21쪽.

54) 이기영, 위의 글, 22쪽.

www.kci.go.kr

> 도 않을뿐 아니라 배가 아퍼진다는 것이다. 그럼 먹지는 못하더라도 베를 장춘으로 가지고 가 팔면 잡곡을 몇배 살 돈이 나오지 않느냐? 또 베농사를 지을줄 모르면 우리가 가리켜 줄터이니 그대로 해보라고 하여도 완강히 반대로만 나가는 것이었다.[55]

만약 「농군」의 목적이 조선인 이주민들의 비극만을 기록하는 데 있었다면, 위와 같은 장면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소설 「농군」의 갈등은 '땅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조선인 이주민 입장에서는 수로를 만들어야 벼농사도 효율적으로 '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벼를 원하지 않으니, 논도 필요하지 않고 수로를 만들길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서 쌀밥이 "고소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배가 아퍼진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답변을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하는데, 이는 개발이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길'로만 여겨지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지라도, 어떤 이들은 '개발'과 같은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소설 「농군」에서 장쟈워푸는 '철도에서 떨어진 곳'이면서, 동시에 '벼농사에 필요한 수로가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서사 구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 과연 식민지 현실에서 '유토피아' 만들기란 가능한 것일까? 이태준은 오랫동안 근대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민족 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던 작가였지만, 소설 「농군」은 그러한 기대가 다른 피식민 집단과 부딪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다룬다. 그에게 '만주행'은 기행문 작성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성립 기반을 돌아보게 하는 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결국 「농군」은 당시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농민들이 "개간권 운동"과 같은 근대적 행동을 통해 새로운 터전을 확보하려다 맞닥뜨린 곤경을 보여준다. 철도, 수로 개발과 같은 근대적 인프라의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농사지을 땅을 찾아 이주한 조선인들의 낙관이 깨지는 과정을 서사화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농군」이 '교통이 통하지 않는 장소'

55)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24쪽.

www.kci.go.kr

라는 공간적 배경에 이르는 경로를 기행문과 다르게 서술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조선인이 마주치게 되는 다른 형태의 '불통', 즉, 말이 통하지 않음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Ⅲ. 이주민의 경로와 불통(不通)의 범주

1. 여행자의 기차와 이주민의 기차

「농군」에서는 이야기의 시작과 동시에 '경의선'이 중요한 배경으로 그려진다. 「농군」의 도입부에서 주인공 창권의 가족은 사리원을 지나는 '봉천행 삼등실 열차'에 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경의선을 타고 만주로 이동 중인 것이다. 실제로 이태준이 만주에 방문했던 당시 이용한 철도가 경의선이었기에 「만주기행」과 「농군」에 이 노선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되짚어볼 것은, 이 과정에서 '기차 차창'이라는 소재를 통해 형상화되는 조선인 이주민의 꿈이다.

> 창권은 다시 창밖을 주의해 내다본다. 시커멓던 유리창에 히끄므레하게 떠오르는 안개, 그안개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땅, **창권이네게는 신세계의 출현이다**. 어룽어룽 누비바탕 같은것이 지나간다. 그 어룽이는 차츰 차츰 밭이랑으로 변한다. 밭이랑은 까마득하게 끝이 없다. (강조는 인용자)[56]

"밭이랑은 까마득하게 끝이 없다"는 표현은 「농군」의 주인공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의 이주 과정이 마냥 밝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들에게는 '행복한 결말'이 보장될 수 없다. 이에 여기서 "신세계"가 이후 단행본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새 세상"으로 수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7] 개작 과정에

56)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21-222쪽.
57) 이태준, 2015, 『이태준 전집 2: 돌다리 외』, 소명출판, 165쪽에서도 각주를 통해 별도로 제시하고

www.kci.go.kr

서 바꿀 정도로 이태준은 '새로운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였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이태준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 주제였다. 그러나 「농군」의 세계에서는, 즉, 만주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지닌 서사에서는 '우리'가 발전하려 하면 할수록,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신세계" 혹은 "새 세상"의 실패는 당시 일제가 '만주국' 건설 과정에서 내세운 '오족협화' 같은 이념과 상반된 결말이었다. 이 소설은 개발을 전제로 한 새로운 '유토피아' 건설의 꿈이 다른 피식민 집단과 목숨을 건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농군」의 철도 형상화를 「만주기행」의 서술과 함께 살펴보면 그 특징이 더 분명해진다. 이태준은 '모더니스트'로서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로운 활용법에 두루 관심을 지니고 있던 작가였으며, '이동'에 대한 서술을 담은 기행문은 이와 관련된 관심사를 확인시켜주는 사례다.[58] 이태준의 만주 기행문을 "소설의 밑그림"이나 리얼리스트로서의 전환점이 아니라 '모더니즘적 실천'이었다고 본 주장[59]을 참고하여, 작가가 두 글을 각각의 속성을 고려하여 작성했음을 살펴보겠다. 두 글은 이동 경로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표 1] 각 작품에 나타난 중간 장소 비교

「만주기행」(1938.4.8.~21./1941)	「농군」(1939.7)
車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끌리어 平壤에 나려 하로 놀고 다시 平壤서 탄 奉天行은 밤車가 되었다. 平壤以北은 二十餘年만이요 安東縣以北은 生後 처음이다. 少年때 安東縣에 갔다 돈이 떠러져 徒步로 나오던 安州, 定州, 宣川, 義州, 다 한번 내다보고 싶은 追憶의 風土들이나 밤車라 커튼을 나리고 잠이나 請할수 밖에 없었다.[60]	**차는 사리원(沙里院)을 지나 시뻘언 진흙 평야를 달린다.** 한쪽창에는 해가 뜨겁다. 북으로 달릴수록 벌서 초겨울의 풍경이긴 하나 훅훅 찌는 사람내 속에 종일 앉었는 얼굴엔 해볕까지 받기에 진땀이 난다. 개다리소반, 바가지쪽들이 차가 쿵쿵 거리는대로 들석거리는 시렁 밑이다.[61]

있다.

58) 박진숙은 『문장』 파의 기행문학을 검토하며, 특히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조선적인 것'이 단순히 '상고주의'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박진숙, 2006,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문장}과 기행문학의 조선표상」,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연구소.)

59) 손유경, 앞의 논문, 226-228쪽.

60) 이태준, 「만주기행」, 1941, 279쪽.

61)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17쪽.

www.kci.go.kr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만주기행」과 「농군」은 같은 경의선을 타고 만주로 향하는 과정을 유사하게 제시하면서도, 그 분위기를 다르게 담는다. 경의선의 종점 신의주역은 안봉선의 기점 안동역과 압록강 철교로 이어졌으며, 안봉선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군용 목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건설한 철도로,[62] 일본과 중국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 상황까지 연계시키는 동아시아의 간선 철도였다.[63] 특히 안동은, 압록강을 건널 수 있는 교통시설이 발달하면서, 조선과 만주 간 국경에 따른 구분을 약화시키는 도시로 기능하게 되었다.[64] 이태준의 기행문은 이러한 노선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동 과정을 국경을 넘는 경험으로 구현하고 있다.

「만주기행」의 이태준은 "車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끌리어 平壤에 나려 하로 놀고", 다시 탄 밤차에서는 소년 시절의 "追憶의 風土들"을 떠올리다 "커튼을 나리고"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간 지점에 머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여행자의 입장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반면 「농군」의 인물들은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차에서 "훅훅 찌는 사람내 속에 종일" 앉아 땀을 흘려야만 한다. 머리 위에서는 "개다리소반, 바가지쪽들"이 들썩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들에게 기차는 만주로의 이주를 위한 이동 경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형사의 심문 장면에서도 이 기차가 이주민들에게 감시의 공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소설에 평양[65]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인물의 조건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66] 생존을 위해 만주로 향하는 창권 가족에게는 도중에 내리거나 멈출 여유가

62) 군용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한 철도였으나, 이후 개량 공사를 통해 일본~조선~만주를 잇는 간선철도의 일부로 기능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단동(당시 '안동')과 심양(당시 '봉천')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까지 새롭게 마련되어 운행 중이다.

63) 김지환, 2014, 『철도로 보는 중국역사』, 학고방, 159-166쪽.

64) 윤휘탁, 2020, 「조선과 만주국 國境邊緣地帶에서의 교류·삶·통제·협력: 신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59-361쪽.

65) 이태준은 '만주기행' 연재 직전에 '평양'을 공간적 배경으로 다룬 소설 「패강냉」(1938.1)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박진숙의 연구는 이 작품에서 이태준이 '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평양을 묘사했음을 밝힌다. 박진숙, 2006, 앞의 논문, 86-90쪽 참조.

66) 평양은 1930년대 조선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사태인 '배화 사건(排華事件)'이 극단적 규모로 발생한 도시로, 이는 '만보산 사건' 오보가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관련 재판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평양 사건'이라는 명칭이 쓰일 정도였다. 손승회, 2009, 「1931년 식민지 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41, 중국근현대사학회; 이상경, 2010, 「이태준의 〈농

www.kci.go.kr

없다. 같은 노선일지라도 누가 어떤 조건하에 탑승했는가에 따라 기차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다.

2. '두려움'과 '답답함', 그리고 노인들의 '사투리'

「농군」은 같은 '피식민자'일지라도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그렇기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만주라는 공간을 통해 서사화한다. '타자에 대한 이해 불가능성'은 창권이 '토민'과 '쿨리'를 향해 느끼는 감정 묘사로 부각된다. 먼저, '두려움'은 창권이 해당 지역에서 먼저 살아온 이들, 즉 '토민'이라 지칭되는 이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 장면에서 중요하게 형상화된다. 마을에 막 정착하려던 시점에 "마적들"이라 불리던 이들을 처음 보게 된 창권은 그들의 말을 "까울리 까울리방즈, 어쩌구한다"고 표현한다.[67]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창권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자기 앞에 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에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추가로 짚어볼 점은 "마적"에 대한 서술인데, 창권은 이들이 '말을 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포착한다.[68] 이러한 서술 방식은 '마적'이라는 명칭에 균열을 만든다.

다음으로 짚어볼 것은 '답답함'의 감정이다. 조선인 창권의 시선에서 '쿨리들'

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176-177쪽. 최근 이은상의 연구에 따르면, 1931년 7월 5일 저녁부터 이틀에 걸쳐 평양에서만 133명이 사망하였는데, 당시 총 사망자 수가 142명으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평양에서의 피해자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다만, 133명은 중국 측 최초 통계에 따른 수치이며, 조선총독부에서는 119명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대부분 평양의 사망자 집계와 관련해서 발생했다는 점은 되새겨볼 만하다. 특히 평양의 피해자 가운데 여성과 아동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참혹함을 짐작케 한다. 이은상, 2025, 「식민지 조선 평양의 배화폭동(排華暴動)과 중국의 대응」, 『비교중국연구』 6(1),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54-63쪽. 다만 소설에 평양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작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행문에는 평양이 등장하며, 심지어 기행문에서는 '만보산사건'의 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들은 바를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 또한 주요 사건 발생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정희, 2016,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인천화교배척사건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5, 동양사학회 참조.

67)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23쪽.

68)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23쪽.

www.kci.go.kr

은 "눈만 피하면 꾀를 피었"고, "우묵한 양지쪽에 앉어 이를 잡지 않으면 조을고 있"는 이들로 그려진다.[69] 그런데 이 '답답함'을 언어 문제나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령 "눈만 피하면"이라는 표현은 쿨리들의 노동이 '감시' 아래 있음을, "빨리 하라고 소리를 치면"이라는 대목은 그 감시가 '빠른 속도'를 재촉하는 명령과 연동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쿨리들을 '꾀를 피우는 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노동의 효율성이며, 여기에는 근대적 노동 규율로 노동자를 평가하는 시선이 깔려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오랫동안 '게으른 노동자'를 문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70] 이 시선은 그러한 위계적 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주목할 점은 이 시선을 취하는 이가 조선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만주로 넘어온 이주 농민이라는 것이다. 창권 역시 "힘들고 지리"한 흙일을 함께 견디는 처지이지만, 쿨리들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 자리에 선다. 피식민자인 조선인 이주민이 여기서는 다른 피식민 집단을 평가하는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조선인 농민들이 중국 농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꺼냈던 "우리가 가리켜" 주겠다는 말과도 맞닿아 있다. 황무지를 개간해 더 많은 곡물을 얻으면 이익이 된다는 논리는 조선인 이주민의 유토피아 구상이 제국주의적 개발의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음을 보여준다.[71] 다만, 「농군」은 일방적으로 조선인의 시선만을 서술하지 않는다. "빨리 하라고 소리를 치면 그들도 알아들을수 없는 말로 마주 투덜대었다"[72]는 구절은 쿨리들이 순순히 자본주의적 노동 규범

69) "쿨리들은 눈만 피하면 꾀를 피었다. 우묵한 양지쪽에 앉어 이를 잡지 않으면 조을고 있었다. 빨리 하라고 소리를 치면 그들도 알아들을수 없는 말로 마주 투덜대었다. 다행히 돌은 없으나 흙일은 변화가 없어 타박타박해 힘들고 지리했다."(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23쪽.)

70) 케이시 윅스, 제현주 옮김, 2016,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 동녘, 69-102쪽.

71) 이러한 시선을 살피는 과정에서 "「만주기행」과 「농군」은 식민권력의 시선을 내면화하며 발생한 식민지적 무의식을 만주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발견한 야만인 '지나'인에 투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정종현의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 정종현, 2004, 「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 1940년대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혼종성」,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108쪽.

72) 원문에서 확인되는 "마주 투덜대었다"는 '마구 투덜대었다'의 오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작가가 의도적으로 '마주'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면, 이 부분을 재촉하는 쪽과 투덜대는 쪽이 서로 마주하고 각자의 말을 주고받는 장면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들의 말은 창권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리지만, 소설은 그 말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히 가시화하는 것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불통(不通)의 감각은 실제 이태준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만주기행' 당시 이태준은 "滿洲語를 모르는 나로 길을 물어 갈수는 없"[73]다는 점에 당혹감을 느낀 바 있다. 「농군」은 이러한 '다름'에 대한 감각이 긴장감 가득한 서사로 구현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선 이주민의 유토피아 구상이 만주에 도착했을 때 다른 피식민 집단의 삶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요컨대 「농군」은 소통 불가능성을 통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만주의 공간성을 부각한다.

수로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을 담은 「농군」의 마지막 장면은 소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만들곤 했다.[74] 여기서 특히 주목해 보려는 것은 수로를 건설하고 마침내 물이 흐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몇몇 죽음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라버지"와 '경상도 노인'의 죽음이다.

> 창권이 하라버지는 물을 갈아먹으면 낫기는커녕, 치위 때문에 기침이 더해졌다. 장근 두달을 밤을 패더니 그만 자리보전을 하고 눕고 말았다. 하 치우니까 이전 조선 나가는 차에까지 내다 실어달라는 성화도 못하고 그저 불만 작고 더 때달라다가, 또 머루는 대려 먹으면 기침이 좀 멋는법인데, 머루만 좀 구해 오라고 아이처럼 조르다가 섣달 그믐을 못 채우고, 눈보라 제일 심한날밤, 함경도 사투리하는 노인, 경상도 사투리하는 노인, 평안도 사투리하는 이웃 노인들에게 쌔여, 히미한 석유등잔 밑에서 별로 유언도 없이 운명하고 말았다.[75]

---

73) 이태준, 「만주기행」, 1941, 298쪽.

74) 이에 관하여 이상경은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요소"는 없으며 오히려 "조선 농민에 사상자가 났다는 식으로 그 비극성, 어두움"이 강조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상경, 2010, 앞의 논문, 196쪽. 본고 역시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면서, 그것이 '노인의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음에 새롭게 주목해 보고자 한다.

75)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25쪽.

www.kci.go.kr

"하라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조선 나가는 차"를 태워달라고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주민들에게 정착 못지않게 귀향 또한 어렵다는 점을 곱씹어보게 한다. 이러한 이동 불가능성은 이 노인들이 결국 이곳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암시한다. '하라버지'에게는 작가의 전작 「영월영감」의 '영월영감'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76][77] 「농군」과 「영월영감」의 노인은 흔히 '노인'이라고 할 때 상상되는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인물형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영월영감'은 커다란 부를 획득할 기회를 노리며 금광 근처에서 맴도는 인물이며, 「농군」의 '하라버지'는 '기침병'으로 등이 굽은 상태에서도 강원도를 떠나 만주까지 이주한 인물이다. 그러나 결국 두 노인 모두 죽음을 맞는다. 이들의 죽음은 그 자체로 제국주의하 개발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인용문을 다시 보면, '하라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인물들이 함경도, 경상도, 평안도 등 다양한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노인들로 묘사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대목은 노인의 죽음이 지닌 비극성을 강조하는 지점이면서, 만주로 건너간 조선인 집단 역시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들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다만 이들의 말은 서로 다르면서도 '통하는 말'이다. 함께 모여 임종을 지키는 노인들의 모습은, 창권이 '토민'과 '쿨리'의 말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 '답답함'과 대조적이다. 즉 이 장면은 말이 통하는 범위가 '우리'로 인식되는 범주와 겹쳐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이 자리에 있었던

76) 기존 연구에서도 「이민부락견문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영월영감」이 언급된 바 있는데, 이때 독해의 중점이 되는 것은 '광산'으로 상징되는 제국주의 비즈니스의 문제다.(손유경, 2013, 앞의 논문, 236-237쪽.) 이러한 분석을 염두에 두되, 본 논문은 「농군」까지 함께 독해함으로써 '노인의 죽음'이라는 공통의 설정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다.

77) 한 선행 연구는 1937년~1938년 무렵부터 이태준이 "고완미나 상고주의적 정서 대신에 현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된다"고 보면서 「영월영감」의 주인공 성익이 '고완품'을 모으는 '상고주의자'였지만, '금광'에 관심을 지닌 영월영감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태준의 「만주기행」을 "타자와 동포에 대한 연민과 이해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권성우, 2005, 「이태준 기행문 연구」, 『상허학보』 14, 상허학회, 195-196쪽. 본 연구에서는 이태준의 '만주 경험'이 「만주기행」과 「농군」에 두루 남겨져 있기에 두 글을 함께 검토하는데, 전술했듯 「농군」은 오히려 '타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는 소설에 가깝다.

경상도 노인이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둔다는 설정[78]은 조선인 공동체의 연대(감)의 모색이 다른 피식민 집단과의 '싸움'과 분리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자본주의적 근면의 윤리를 비판하면서도 유토피아 상상을 포기하지 않는 케이시 윅스(Kathi Weeks)의 논의는 이 이야기를 재독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윅스는 오늘날 정치 논의에서 '유토피아주의'가 일종의 "흠결"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하에, '반유토피아' 논의들을 검토하고 "유토피아적 기록이라는 형식적 영역"에의 길을 살피는데,[79] 가령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시작된 비판적 서사 형식에는 일종의 긴장 관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살피며 그 특유의 '양다리적' 속성을 고찰함으로써 유토피아 상상의 의의를 역설한다.[80] 이는 「농군」과 같은 '유토피아의 실패담'이 지닌 양가성을 재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농군」은 만주에서의 유토피아 만들기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자연스레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 층위의 언어와 입장을 가시화한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토민', '쿨리'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이들의 삶을 다층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설이다. 가령 "자기네는 조선사람들 때문에 농사도 못짓고 떠나야 옳으냐는"[81] 중국인 농민들의 반문은 이들의 생존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이에 이 소설은 민족의 비극을 서사화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와 개발의지가 뒤섞이는 양상'을 다각도로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로 재해석될 수 있다.

Ⅳ. 나가며

이 글의 목적은 「농군」이 조선인 이주민의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없었던 조건

78) "사람이 떠나려온다. 창권은 다리를 쩔룩거리며 뛰여들었다. 노인이다. 총에 옆구리를 맞었다. 바로 창권이하라버지 운명할때, 눈을 쓸어 감겨주던 경상도 사투리하던 노인이다."(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28쪽.)

79) 케이시 윅스, 앞의 책, 276-277쪽. 이 책은 '유토피아'의 의의를 놓지 않고 미래의 시간성을 사유할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다듬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80) 위의 책, 328쪽.

81) 이태준, 「農軍」, 『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224쪽.

www.kci.go.kr

을 서사화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조선일보』에 "르포르타―쥬 移民部落見聞記"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후 「만주기행」으로 수정되어 『무서록』(1941)에 실린 기행문과 1939년 7월 발표된 소설 「농군」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소설이 공간적 배경을 철도·수로 같은 '제국의 인프라' 바깥에 놓인 장소로 그림으로써 이주민들의 곤경을 다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때 '장작림 시대'라는 허구적 설정이 '장쟈워푸'라는 공간적 배경과 얽히면서 조선인 이주민의 복합적인 심경 묘사가 부각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이 글은 소설을 「만주기행」과 비교함으로써 여행자 이태준이 경험한 이동 경로와 달리 소설 속 조선인 이주민은 기차에서 하차할 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토민들'로 지시되는 중국 농민들의 말과 게으르다고 인식되는 '쿨리들'의 신체 표현에 주목하여, 「농군」에 다양한 언어들이 착종되고 있음을 되짚어보고자 했다. 특히 '쿨리'를 바라보는 창권의 시선에서는 피식민자인 조선인 이주민이 다른 피식민 집단을 평가하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본 논문은 이 대목이 「농군」에서 조선인이 느끼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만주라는 공간에 있었던 다층적 집단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소설 「농군」은 자연스레 여러 집단의 목소리나 생활 방식을 담게 되면서, 다른 집단과의 소통 불가능성을 서사화하는 한편, 이들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다.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지닌 "식민지화된 자들의 꿈"은 어느 정도의 모순을 지니고 있었고,[82] 이를 근본적으로 재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제를 넘어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존재들 간의 관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는 「농군」에 나타난 철도, 수로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시도하였지만, 땅과 물줄기와 같은 물질이 중요하게 다뤄짐에도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다만, 본 논문은 「농군」이 개발의 과정을 그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수로 개발 때문에 발생한 혈전, 그로 인한 '행복한 결말'의 실패는

82)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이신철 옮김, 2023, 「근대적이라는 것의 어려움」, 『행성 시대 역사의 기후』, 에코리브르, 174쪽.

www.kci.go.kr

비슷한 시기 다른 '만주 서사'가 보여주었던 낙관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패담'은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이 다른 피식민자와 마주쳤을 때 겪었을 긴장감을 부각시킨다. 이로써 「농군」이 조선 사회에 전달하게 된 것은 '민족 발전'이라는 근대적 꿈의 곤경이다. 소설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괴뢰 유토피아'식 명제에 대한 만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농군」은 만보산 인근 지역을 배경으로 '누구의 유토피아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대립을 보여준 소설이다.

「농군」의 서사를 관통하는 것은 땅을 둘러싼 긴장감이라 할 수 있다. 「농군」의 조선인 이주민 가족이 탄 기차는 유토피아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그곳은 어느 누구의 유토피아도 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본고는 작가가 '유토피아의 실패'를 전함으로써 그러한 구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지는 않았다고 본다. 이러한 「농군」의 서사가 작가의 이후 행보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태준,「르포르타—쥬 移民部落見聞記」,『조선일보』, 1938.4.8.~21
이태준,「農軍」,『문장』 1권 7호, 문장사, 1939.7
이태준,「滿洲紀行」,『無序錄』, 博文書館, 1941
이태준, 2015,『이태준 전집 2: 돌다리 외』, 소명출판
이기영,「만주와 농민문학」,『인문평론』 1939년 11월호
임화,「7월 창작평 (1) : 嫩! "農軍"의 悲劇美」,『조선일보』, 1939.7.19

2. 논저

고명철, 2008,「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 이태준의 〈농군〉과 한설야의 〈대륙〉을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49, 한국문학회
고태우, 2020,「식민지기 '북선개발(北鮮開發)' 인식과 정책의 추이」,『한국문화』 8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성우, 2005,「이태준 기행문 연구」,『상허학보』 14, 상허학회
김민지, 2025,「한국문학과 경원선의 의미망: 이광수·이태준·최인훈 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재용, 2004,『협력과 저항: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김주현·권혁건, 2011,「일제 강점기 만주의 농업 기술을 통해 본 민족 문제 시론(試論): 안수길의 작품을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회
김지환, 2014,『철도로 보는 중국역사』, 학고방
김철, 2006,「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김택호, 2010,「이태준 문학과 이상적 공동체주의」,『상허학보』 29, 상허학회
리우샤오리(Liu Xiaoli), 2016,「东亚殖民主义与文学-以伪满洲国文坛为中心的考察」,『만주연구』 22, 만주학회
박진숙, 2006,「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문장}과 기행문학의 조선표상」,『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연구소
박진숙 2023,「해방 이후, 월북 전후의 이태준」,『한국현대문학연구』 71, 한국현대문학회
朴弘, 2026,「번역문의 차이로 보는 '万宝山事件'의 문학적 표상: 李泰俊「農軍」의 일본어 번역본 비교 분석」,『만주연구』 41, 만주학회
배개화, 2015,「이태준, 최대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자: 해방 이후 이태준의 사상과

www.kci.go.kr

문학」,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서영인, 2007, 「일제말기 만주담론과 만주기행」, 『한민족문화연구』 23, 한민족문화학회
손승회, 2009, 「1931년 식민지 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41, 중국근현대사학회
손유경, 2013, 「이태준의 「이민부락견문기」에 나타난 제국의 비즈니스와 채표(彩票)의 꿈」, 『관악어문연구』 3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양지혜, 2022, 「탁상 위의 유토피아: 일제하 조선 북부의 개척촌 조성과 실패」, 『사림』 81, 수선사학회
윤상원, 2012, 「만보산 사건과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중국 인식」,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윤해동, 2013, 「'만보산 사건'과 동아시아 '기억의 터': 한국인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윤휘탁, 2020, 「조선과 만주국 國境邊緣地帶에서의 교류·삶·통제·협력: 신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이상경, 2010,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이상경, 2011, 「1931년의 '배화(排華)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11, 만주학회
이은상, 2025, 「식민지 조선 평양의 배화폭동(排華暴動)과 중국의 대응」, 『비교중국연구』 6(1),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이정희, 2016,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인천화교배척사건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5, 동양사학회
임유경, 2016, 「소련기행과 두 개의 유토피아: 해방기 "새조선"의 이상과 북한의 미래」,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연구소
장성규, 2006,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 오스키 사카에,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 그룹,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장영우, 2006, 「〈농군〉과 만보산사건」, 『현대소설연구』 31, 한국현대소설학회
장영은, 2021, 「가면을 쓴 작가들: 정지용과 이태준의 고백」,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정병욱, 2012, 「신설리 패, 중국인 숙소에 불을 지르다: 1931년 반중국인 폭동에 대한 재해석」, 『역사비평』 101, 역사문제연구소
정종현, 2004, 「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 1940년대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혼종성」,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조영추, 2019, 「정치적 유토피아와 전통지향적 미학의 이합(離合)관계: 이태준의 소련·중국 기행문과 소설 「먼지」 겹쳐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71, 민족문학사연구소
하재연, 2008, 「'신체제(新體制)' 성립 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 이태준의 〈농군〉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5, 한국현대문학회

www.kci.go.kr

하정일, 2004,「1930년대 후반 이태준 문학과 내부 식민주의 성찰」, 문학과사상연구회,『이태준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한석정, 2016,『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한수영, 2004,「이태준과 신체제: 식민지배담론의 수용과 저항」, 문학과사상연구회,『이태준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홍기돈, 2007,『근대를 넘어서려는 모험들』, 소명출판
도미닉 데이비스, 김태한·김태희 옮김, 2025,『제국의 인프라: 1880년부터 1930년까지 식민문학에 나타난 제국의 인프라와 공간적 저항』, 앨피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이신철 옮김, 2023,「근대적이라는 것의 어려움」,『행성 시대 역사의 기후』, 에코리브르
류샤오리, 천춘화 옮김, 2024,『국토의 함락, 문인의 행보: 만주국 문학론』, 보고사
실라 피츠패트릭, 안종희 옮김, 2023,『아주 짧은 소련사: 러시아혁명부터 페레스트로이카까지, 순식간에 사라진 사회주의 실험의 역사적 현장』, 롤러코스터
케이시 윅스, 제현주 옮김, 2016,『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 동녘
토머스 모어, 주경철 옮김, 2021,『유토피아』, 을유문화사

투고일: 2026년 09월 20일 심사완료일: 2026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26년 10월 19일

www.kci.go.kr

■ Abstract ■

Can the Colonized Dream of a Utopia?
: The Narrative Construction of "Migration to Manchuria" in Yi Tae-jun's "Nonggun" (1939)

Kim Minj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Yi Tae-jun's short story "Nonggun" (Farmers, 1939) narrates the failure of the Korean migrants' utopia. It reads the story alongside "Travels in Manchuria" (1938/1941), a travelogue Yi serialized prior to the fiction. This reading reveals a story set where transport cannot reach and speech cannot get through. Section 2 shows how Yi's visit to Manchuria shaped the story's setting. Yi already knew Jiangjiawopu, where the Wanbaoshan Incident had broken out, as a contested site. In the story, the village lies beyond the "infrastructure of empire." No railway reaches it, and no irrigation channel serves it. The migrants must build their utopia with their own hands. Section 3 compares how the two texts narrate the journey north. In the travelogue, Yi is a traveler free to stop over in Pyongyang. The migrant farmers in the story have no such freedom. The same Gyeongui Line carries different meanings for each. The section then turns to language. "Nonggun" renders the speech of the "natives" and the "coolies" as unintelligible. This heightens the protagonist's fear and frustration. At the same time, the gaze cast on the coolies suggests that the migrants, themselves colonized, could sit in judgment on another colonized group. Yet, the narrative does not erase the natives' objections or the coolies' grumbling. It lets many voices around the irrigation project be heard. In sum, this paper explores how the search for a utopia for the nation, or for "us," becomes intertwined with the drive for development. It argues that "Nonggun" deserves re-reading beyond the question of collaboration. The story lays bare the complexity of the colonized's modern dreams.

Key words: Yi Tae-jun, "Nonggun," "Travels in Manchuria," Wanbaoshan Incident, representation of the Gyeongui Line, narratives of migration to Manchuria, colonial development, utopian fiction

www.kci.go.kr